

강진군 보은산 둘레길 15.6km 전 구간 개통

8억6000만원 투입 3년에 걸쳐 4개 구간 트레킹 코스 완성
군민·여행객 위한 ‘숲속 힐링로드’ …강진 생태관광 기반 마련

강진군이 보은산 트레킹길(둘레길) 15.6km 전 구간을 모두 연결하며 자연을 누리는 생태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강진읍과 군동면, 작천면, 성전면을 아우르는 보은산 일원에 단계적으로 조성된 이 숲길은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가 일상에서 자연을 마주하고 지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심 속 녹색 쉼터로 주목받고 있다.

보은산 트레킹길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8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장기 프로젝트로 4개 구간에 걸쳐 트레킹 코스가 완성됐다.

1차구간은 강진읍 동성리에서 군동면 파산리를 잇는 3.2km, 2차구간은 군동면 파산리에서 작천면 평기리로 이어지는 2.8km, 3차구간은 작천면 평기리와 성전면 명산리를 연결하는 약 2.0km가 개설된데 이어 마지막으로 성전면 명산리에서 강진읍 남성리로 다시 돌아오는 약 2.3km의 4차구간이 올해 조성됐다.

트레킹길 전 구간에는 목계단, 폐수로, 돌의자, 이정표 등이 설치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완만한 경사와 자연친화적 노면 설계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다.

사계절 변화하는 숲의 경관은 걷는 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트레킹길 전 구간을 안내하는 이정표 제작과 전망이 좋은 장소에 의자 등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성전면과 작천면 방면에서 트레킹길로 올라갈 수 있는 연결노선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강진읍 강진군수는 “보은산 트레킹길은 강진이 가진 숲의 매력을 가장 자연스럽게 담아낸 길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방문객들에게도 소중한 쉼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자연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여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 보은산 트레킹길(둘레길) 15.6km 전 구간이 모두 연결됐다. 강진 보은산 트레킹길. <강진군 제공>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로”…시민추진위 본격 가동

서명운동 등 유치 구심점 역할

나주시민들이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무한 청정 핵융합에너지 연구시설 유치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역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원회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이 명예 위원장으로 참여했으며,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재남 시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민간 공동위원장은 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과 김성의 재광나주향우회장이 위촉됐으며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150여 명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했다.

인공태양은 태양의 핵융합 원리를 모방해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결합, 고온의 열을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이다.

바닷물 속 수소 1g으로 석유 8t에 맞먹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폭발 위험이 낮아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기술로 꼽힌다.



나주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지역 사회단체와 출향 향우,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연구시설 유치를 향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1조2000억원 규모의 연구시설을 유치할 경우, 2050년까지 200여개 기업 유치, 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인력 유입으로 나주가 ‘에너지 신기술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KENTECH·켄텍)와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산학연 인프라가 집적돼 있고, 넓은 부지와 안정적 용수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인공태양 연구시설 최적지”라며 “시민과 함께 반드시 유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아동·청소년 음악 성장 무대…광복 80주년 기념 공연 눈길



‘2025 담양군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지난 1일 담양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

이번 연주회는 담양군이 주최하고 (사)누림이 주관한 행사로 드림오케스트라 단원과 학부모와 군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해 아동·청소년들의 음악적 성장을 응원했다.

무대에서는 단원들이 수개월간 연습한 합주곡을 선보였으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준비한 위인 음악극 ‘장군 흥범도’는 역사적 인물의 뜻을 음악으로 풀어내 관객의 큰 호응을 받았다.

담양군 관계자는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가 우리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예술로 자신을 표현하고 꿈을 키워가는 소중한 통로가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무대 위에서 느낀 성취가 삶의 자선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흥군, 빈집 체계적 관리·활용 방안 마련 팔 걷었다

빈집정비 및 활용 TF회의

중앙정부 공모 통한 해결 등 논의

장흥군이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늘고 있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장흥군은 최근 농촌 빈집 문제 해결하고 실질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빈집정비 및 활용 TF회의’를 열었다. <사진>

회의에서는 지역에 산재한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예산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빈집 관리·활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흥군은 그동안 예산 한계로 인해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빈집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TF회의를 계기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사업을 연계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2026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과 ‘2026년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등 공모에 참여해 국비를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흥군은 귀농·귀촌인과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관리대상’을 제작·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구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질

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노영환 장흥군 부군수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빈집 정비와 활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해마다 증가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쾌적하고 활력있는 장흥군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춘양분소 개소

농업기계 31종 58대 갖춰

화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춘양분소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춘양분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춘양분소는 8315㎡ 부지에 연면적 980㎡ 규모의 2층 건물로 조성됐다. 관리기 등 31종 58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또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실과 2000㎡ 규모의 농업기계 실습장을 갖춰 이론·실습 중심의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소로 화순군은 분소와 동북·춘양 3개소의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게 됐다. 지역 농업인들은 거주지 인근에서 손쉽게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필요 시 농경지로 배송받는 서비스도 이



화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춘양분소.

용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춘양분소 개소로 농업인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라며 “앞으로도 임대 인프라 확충을 통해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영농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김한중(왼쪽) 장성군수가 어르신들을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는 ‘병원 동행 서비스’ 일손을 거두고 있다.

장성군, 거동 불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왕복 이동 차량·동행 인력 지원

장성군이 거동이 불편해 혼자 병원을 찾지 못하는 지역 내 고령 주민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대상은 병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가족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이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왕복 차량과 동행 인력을 제공한다. 진료 접수와 대기 등의 절차도 전문 인력이 맡아줘 편리하다.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은 사전에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수행기관인 영락약료원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단, 장기요양등급 주민이나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혼자 병원을 찾기 어려운 고령 주민을 위한 필수 복지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내년부터 산후조리 지원금 100만원

기존 50만원 보다 2배 증액 지급

함평군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함평군에 출생 신고를 마친 가정이다.

산후조리비는 산후 회복을 위해 사용된 비용을 사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원 가능한 항목은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 부담금 ▲위생용품·약품·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산부인과 진료비 및 산후유증 상담비 ▲산후마사지·요가 등 체력 회복 관련 비용 등이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함평군 보건소

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함평군은 출산장려금과 산후도우미 비용 지원, 맞춤형 유아·보육 통합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4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출생 인원 108명 합계출산율 1.32명으로 전국 6위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출생 120가정·합계출산율 1.43명 달성을 목표로 내년에는 130명 출생을 목표로 출산 진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한 회복은 가족의 행복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 가정이 더 따뜻한 지역사회에 관심 속에서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